
출장결과보고

2024 한미경제학회 연차총회 참석

2024. 1. 5. ~ 9.



한국개발연구원
Korea Development Institute

1 출장 개요

- 기 간: 2024년 1월 5일(금) ~ 9일(화) [3박 5일, 출·입국일 포함]
- 출장지: 미국 샌안토니오
- 주요 활동: 한미경제학회 정책포럼 및 전미경제학회 참석
- 참석자: 조동철 원장, 김보전 연구원

2 출장 일정

일자 (현지시간)	시간	주요일정	비 고
1월 5일(금)	16:00 ~ 08:55	인천 → 시애틀	▪ KE0041
	12:27 ~ 18:26	시애틀 → 샌안토니오	▪ AS0494
	~	호텔 이동 및 체크인	▪ Drury Plaza Hotel San Antonio
	18:30 ~ 20:00	간담회(1): 사전 간담회	
1월 6일(토)	08:00 ~ 10:00	Academic Session I	▪ Convention Center
	12:00 ~ 14:00	간담회(2): 전미경제학회 관계자	
	12:30 ~ 14:15	Academic Session II	▪ Convention Center
	14:30 ~ 16:30	Academic Session III	▪ Convention Center
	17:30 ~ 18:30	The KAEA-Maekyung Forum	▪ Convernition Center ▪ 기조발제: Linda Tesar
	18:30 ~ 19:15	Annual Business Meeting and Award Ceremony	▪ Convention Center 301B
	19:30 ~ 21:30	KAEA Dinner Banquet	▪ Boudro' s on the Riverwalk (venue: Fire Wheel)
1월 7일(일)	07:00 ~ 08:00	조찬	▪ Convention Center, 302B
	08:00 ~ 10:00	KAEA Policy Forum	▪ Convention Center, 302B
	12:00 ~ 14:00	간담회(3): 국책연구원장 모임	
	12:30 ~ 13:50	KAEA Workshop I	▪ Convention Center, 302B
	14:10 ~ 15:30	KAEA Workshop II	▪ Convention Center, 302B
	18:00 ~ 20:00	간담회(4): 한미경제학회 관계자	
1월 8일(월)	07:00 ~ 10:20	샌안토니오 → 아틀란타	▪ DL0690
1월 9일(화)	11:30 ~ 17:25 ⁺¹	아틀란타 → 인천	▪ KE0036

3 주요 활동

1. 한미경제학회 기초발제 세션 참석

- 일시: 1월 6일(토) 17:30~18:30
- 장소: Henry B. González Convention Center
- 주제: Labor Mobility and Unemployment in a Currency Union
- 발제: 린다 테사(미시간大)

- (유럽 vs. 미국: 실업률 차이) 유럽은 미국보다 국가 간 실업률 차이가 더 큼.
 - 이는 통화 정책이 모든 국가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기 어려워 경제 충격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을 나타냄.
- (노동 이동성과 실업률) 실업률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이주로 인해 실업률 차이가 줄어들 수 있음.
 - 연구 결과 유럽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만, 미국보다는 그 효과가 작음.
- (먼델의 주장과 통화 동맹) 먼델(Mundell)은 통화 동맹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 간 요인, 특히 노동 이동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함.
 - 이 연구는 노동 이동성 증가가 유럽 실업률 차이를 줄이고 전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줌.
- (노동 이동성 vs. 변동 환율) 두 가지 정책 모두 실업률과 국가 간 GDP 차이를 줄일 수 있음.
 - 하지만 효과와 부작용이 다름. 노동 이동성은 총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는 반면, 유연한 환율은 국가 간 인플레이션 차이를 크게 만들 수 있음.
- (통화 정책의 역할) 노동 이동성과 유연한 환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생산량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통화 정책이 필요함.

2. 한미경제학회 정책포럼 발제

- 일시: 1월 7일(일) 07:00~10:00
- 장소: Henry B. González Convention Center
- 주제: 한국경제 현황과 대외경제 전망
- 토론: 조동철(KDI), 최병일(고등교육재단 총장), 배경율(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), 이재원(한은경제연구원장), 유장희(前대외연원장)

- (낮은 경제 생산성)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지수(TFP)는 지난 10년간 1%를 하회하고 있고, 현재는 전 세계 선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함.
 -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, OECD 내 한국의 1인당 GDP 순위도 점차 낮아지고 미국과의 경제 격차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됨.
- (진입 및 퇴출개혁)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 정책에서 벗어나야 함.
 - 퇴출되어야 할 기업이 지속적인 정부 지원으로 좀비기업으로 남거나,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기업의 규모를 키우지 않는 이른바 ‘피터팬 증후군’ 등이 경제 성장의 불씨를 꺼뜨리는 요인임.
- (3대 개혁) 한국 경제는 사회개혁(노동, 교육, 연금)이 시급함.
 - (노동 개혁) 한국 사회의 높은 연공서열성은 고령층의 고임금은 젊은이들의 일할 기회뿐만 아니라,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어렵게 만들고 있음.
 - (교육 개혁)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함. 획일적인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보조금을 주는 현 제도하에서는 대학은 개혁을 게을리할뿐더러 교육 서비스의 질도 떨어짐.
 - (연금 개혁) 젊은 세대의 고령층 부양 부담은 줄이고, 이들이 후일 낸 만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연금제도의 창설이 필요함.

3. 한미경제학회 관계자 면담

- 일시: 1월 7일(일) 11:00~13:00
- 장소: Henry B. González Convention Center
- 참석자: 조동철 원장, 김보전 연구원 (이상 KDI),
장유순(인디애나대), 정광수(존스홉킨스대), 이준수(앨라배마대)

- 2024년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
 -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글로벌 경제 성장까지 위축시킬 수 있음.
 - 탈세계화와 경제 블록화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경제 교류가 위축될 수 있음.
 -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관세정책, 안보정책, 기후변화정책 등에 변화가 생겨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음.
- 미국 경제는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고, 실업률도 높지 않아 경제 연착륙 가능성이 높음.
 - 다만, 중국 경제 침체, 지정학적 불안 등 변수가 생길 경우 연착륙이 어려울 수 있음.
 - 미국 경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연준은 금리 인하 시기를 최대한 뒤로 미룰 것이나, 실물 경기지표가 하락하거나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
-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와 중국 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
 - 다만, 수출 회복과 내수 부진 완화 등으로 2024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2.5%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

4 관련 사진

